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6호 【루게 제24589호】 주제103(2014)년 6월 25일(수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육아  
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국방위  
원회 설계국장인 육군중  
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  
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2월 평양시의 육아  
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  
면서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  
래의 역군들이라고 하시  
며 풍치수려한 대동강기  
슉에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일떠세워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  
원, 애육원을 세상에 들도 없는 아이  
들의 요람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몸소  
설계도 지도해주시였고 자체보장대  
책을 세워주시였으며 나라의 건설교  
육자부대로 자랑떨치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를 건설에 투입해주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건설장에 진출한 군인건설자  
들은 단 며칠사이에 굴착공사를 끝낸  
데 이어 팔조공사를 힘있게 벌림으로  
써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에 평양육

아원, 애육원건물의 자태가 드러나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  
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에  
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

원, 애육원이 일떠서는 곳은 정말로 명  
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  
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  
보기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침실을 비롯한 모든 요소요소를 최

상의 수준에서 시공하며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과  
오락실도 특색있게 꾸려주  
고 보육원, 교양원들의 생  
활실은 물론 후생시설들도  
잘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  
하시였다.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  
들은 락아소, 유치원생들인  
것만큼 책상과 결상, 침대  
를 아이들의 연령심리적특  
성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고 하시면서 모든 가구와  
비품, 집기류들을 당에서  
마련해주겠다고 말씀하시  
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주  
변정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공원을 중심  
에 맞게 재미나게 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  
이 심어야 한다고 지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모든것은 세계적인것  
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  
면 건설자들이 한강의 벽돌, 한삼의 물  
람에도 당의 의도와 애국의 마음을 담  
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조선인민군

제 267군부대에 건설을 맡겼으므로 건축물의 질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평양 육아원, 애육원을 표준이 되게 건설하

려는것은 이곳을 본보기로 각 도의 련하는 이곳을 본보기로 각 도의 육아원과 애육원들도 잘 꾸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로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듯이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사회적기공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제 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이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함으로써 당중앙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사설

#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자

6월 25일은 미제침략자들이 조선민족에게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한의 날,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폭발시키는 분노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4년전인 1950년 6월 25일은 조선반도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싸움터》, 《공산주의와의 승패를 겨루는 시험장》이라고 떠들면서 미국적 리승만도당을 사육하여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타도하기 위해 저들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광그리 동원하여 인류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온갖 야수적방법들을 다 썼으며 심지어 원자탄투하까지 꾸미었다.

장군님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우리 공화국과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피괴군 등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이 전대미문의 전쟁은 단위전적 규모와 치열성에 있어서 사상 최대의 전쟁이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3년간의 전쟁은 물리적대결이 전에 사상과 리념의 대결, 정신력의 대결이었으며 자주적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또다시 외세의 발굽밑에 짓밟히느냐 하는 판각리싸움이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창이 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하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비의 용감성과 대적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알리고 서둘러 전쟁의 불을 질렀던 미제는 력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고 전쟁을 수 없는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주체전략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수령님의 부채를 받들고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심과 조국수호정신,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조국과 인민을 생사관망의 위기에서 구원해주시고 이 땅위에 통일된

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행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여 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조선반도에서는 미제와 피괴호전광들의 끊임없는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어느 하루도 전쟁의 위험이 가시진 때가 없었다. 미제의 침략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은 어찌나 오늘이나 달라진것이 없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포악해지고있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웅당할 교훈을 찾은 대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새 전쟁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넣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민족 내부문제에 간섭하고 제방을 뚫어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길을 막아놓으려고 하고있다. 상전을 등에 업은 남조선피괴들은 《키 리올브》와 《독수리》, 《올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대규모합동군 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일삼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강화책동과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술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통일대박》이 낀 조선반도에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식시키기 위한 체제동원책동에 피논이 되어 날뛰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피해를 겪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와 통일은 최대의 념원이다. 미국과 피괴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다시금 전쟁의 참화를 피할수 없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미제와 피괴패당의 부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반전평화투쟁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과제이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인류가 일찍이 체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제 2의 6.25가 가져올 재난은 결코 지난 세기 50년대의 전쟁참화와 비교할수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이 나아가갈 길은 오직 하나 미국과 그 주구들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민족적인 애국정신을 총발기하는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반전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의 무력증강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되려야 한다.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는 북과 남이 따로 있을수 없고 계급과 계층, 정권과 신앙, 소속의 차이가 있을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원흉이며 조선반도평화과피의 진범인인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누구나 한결같이 펼쳐나서야 한다.

내외호전세력이 떠들고대고있는 《북핵 및 미사일위협》소동의 위협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미국의 부분별한 핵위협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새차례 지펴올려야 한다. 미국은 지난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방대한 병력과 최신형무장장비들을 총동원하고서도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도장을 찍은 치욕의 력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침예한 대결정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온 사회에 근사적기공을 철저히 확립하고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군민대단결을 철동같이 강박관한다면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다시금 전쟁의 참화를 피할수 있는 비결로 되겠다.

주체사상국제연주소 사무원장 오가미 쟁이씨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지지 않고서는 모든 나라들에서 평화를 실현할수 없다.

은갖 지배와 억측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현실은 선군의 길로 나아가갈 때만이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모시였기에 조선은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질수 있었으며 이것은 진보적인인류에게 본보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각각께서 계시어 김일성주석과 김일일총비서의 조국통일념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제 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이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함으로써 당중앙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혁명무력건설에 쌓으신 백두산철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종의 딸 주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총대 조선혁명을 개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평생을 조선의 독립과 사회주의건설, 통일위업을 위해 바치시였다.

조선인민을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김일성주석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백철백승의 강철의 명장으로 우러르고있다.

민민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것이다.

월남정찰총국대표단 단장 또 반 도영은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김일성동지는 혁명무력건설의 최정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진취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군력강화에 쌓으신 천출위인들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있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끄떡없다.

오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명도하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인 남골로 음봄바는 체류기간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불위의 활동을 모시고 조선을 강위력한 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며 나미비아를 비롯한 아프

리카인민들의 투쟁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시였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명도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의 튼튼한 토대는 조선의 국방력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올라설수 있는 비결로 되겠다.

주체사상국제연주소 사무원장 오가미 쟁이씨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지지 않고서는 모든 나라들에서 평화를 실현할수 없다.

은갖 지배와 억측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현실은 선군의 길로 나아가갈 때만이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모시였기에 조선은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질수 있었으며 이것은 진보적인인류에게 본보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각각께서 계시어 김일성주석과 김일일총비서의 조국통일념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밑에 많은 대상물을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과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이 반영된 백점, 간점짜리를 완성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선, 선전선동의 뒷바람을 더욱 새차례 일으키며 군민협동작전으로 건설을 불이 번쳐 나게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지휘관들과 일꾼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건설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편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설비와 마장자재들을 건설에 지장없이 보충하며 모든 건설자들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를 명심하고 많은 대상물들을 기발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말씀을 높이 받들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새차례 지펴올려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에서 조선의 결실은 곧 실천이라는 진리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힘있게 파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장전 52쪽에 즈음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오랜 역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당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위성과과학자 거리를 제기일에 훌륭히 일떠세우자

## 군민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위성과과학자거리를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할데 대하여 주신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민열기모임이 2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현영철동지, 로두철동지와 판계부원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건설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특근장 현영철동지의 보고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 김정환, 대외건설지도국 부국장 신제일, 조선인민내무군 인민박광원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을 받기하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뜻깊은 6월 19일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어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쳐 끝낼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 살림집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선자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자들에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안겨주시고 쓰겁게 말씀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건설을 완공하는것은 당에서 과학자들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대상별, 단계



# 1950년 6월 25일의 공화국인민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속에서 자기 세운 새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웠 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홀 러간 역사의 하루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60여년 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날을 잊지

## 평화와 번영의 꿈을 안고

전쟁에 휩쓸린 당시 인민들의 자애와 용감, 구체적인 말과 행동은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어떤 상황에서 미제와 리승만파들이 강요한 전쟁에 부각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60여년전 역사의 갈피를 헤 치는 과정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1950년 6월 24일, 백두산기지에서는 위엄-대령사 이 립산철도개공식이 거행되 었다. 협소한 산맥을 계절리 수심km에 달하는 철도부설공사 를 완공한 백두산립천건설사무 소 로동자들은 년간 10만건의 토나무를 건설터전으로 집중 수송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 기쁨과 자량을 안고 개공식에 참가하였다.

1950년 6월에 들어와 각지의 관광과 관광, 공장, 기업 소들에서는 2개년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를 위한 애국적경쟁 산경쟁운동이 더욱 힘차게 벌 어졌다. 6월 1일부터 20일 까지의 생산계획을 110%로 넘 성 수행한 신장관광을 비롯 하여 각지의 많은 관광, 공장들 이 20일간 생산계획을 초과수 행하였으며 청소년공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는 6월 중순에 들어와 생산속 도를 6월 초순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높이고있었다.

있고있으며 그 준엄하고 비싼 시간에 자신을 세워보고있다. 수천만의 공화국인민들중 누구 도 바라지 않았던 전쟁,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생활이 약속되어있 는 평화로운 일요일의 새벽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이 가슴스러운 불행과 재난앞에 그들은 과연 어 떻게 대응으로 나섰는가.

이 시기 국영지방산업공공장의 생산장성은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여 합성단추의 지방산업 만 하더라도 한 분기의 총생산 량이 1947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7배에 달하는 획기적장 성을 이룩하였다.

농촌들에서도 농민들의 애 국적열의밑에 영농전투가 속 속 다그쳐지고 불철주야에 고 지수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더우기 주목할만 한 사실은 녀성들의 사회진출이 적극화된 것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까마 눈을 뜨고 인간으로서의 참다 른 존엄과 권리를 찾은 우리 녀성들은 높은 창발성과 애국 적열성을 발휘하여 인민경제발 전을 위한 보람찬 일터에 앞을 다투어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이즈음에 와서 녀성기술자, 녀 성인공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 나고있었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950년 6월 24일, 평 양의학대학에서는 의학부 및 약 학부 졸업식이 있었다. 정부군 일군들이 참가한 속에 의학부와 약학부의 졸업생들에게 영예의 졸업증서가 수여되었다.

1950년 6월, 김일성종합 대학에서는 연구원 연구생들의 학위논문제출자격검토를 위한 전공과목과 관계과목들의 시험

이 진행되고있었는데 이 시험은 7월말까지 계속 실시될 예정이 었고 국립 음악학교에서는 1950년 9월에 입학식일 본 과 및 연구부 신입생모집사업이 한창이었다.

전쟁전야에 벌어진 이와 같은 사실들만 놓고보아도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조 국민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던 당시 인민들의 드높은 기백과 약동적인 숨결을 느낄수 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의 대사변과 더불어 운

운한대 대한 공화국 내부성보도를 들고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꼈 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놈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은 제놈들의 최후의 멸망을 조페하 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패배부 문에봉은 침략자들 에 대한 분과적 증오가 불길처럼 치솟아오르며 해방된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손에 총 을 잡고 전선으로 나갈것을 피 려는 조국애의 심장으로 탄원 한다.》라는 탄원서를 썼다.

로동계급도 전선탄원운동의 열광에 빠져들었다. 6월 26일에 평 양철도공장, 사동연탄공장, 평 양정리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 장, 기업소로동자들이 졸업원 열기회를 열고 전선으로 출동할 것 을 결의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인민들속에는 전쟁이 일 어난 소식을 로양소나 휴가길에 서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멀리 까지 갔고 학업에 열중하던 청년 들 도 뛰어들었다.

《아이, 개놈들! 제땅에서 마 음껏 잘살아보라 했더니... 제땅의 한 농민이 견배된 호미를 버쳐 쳐들고 남쪽을 향 해 터진 이 절구는 전체 조선인 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한 것 이었다.》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평양수산공장 로동자 황운길 은 남조선피뢰군에 불의에 침공

명의 극적전환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은 크나큰 삶의 희열과 향만, 보람에 넘쳐 행복한 민중 의 나라, 누구나 다같이 일하고 배우며 잘사는 근로대중의 참다 른 낙원을 신심드높이 건설해가 고있었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의 가슴 속 에 매일에 대한 아픔담고 고 거창한 꿈이 활화산마냥 불타고있던 바로 그 시각 조 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와 리승만파괴도당은 우리 공화 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어디서도 이 목소리가 높이 울 러 퍼졌다. 6월 27일, 김일성종합대학 에서 는 집회가 진행되고 2800여명의 남년청년학생 들이 전선으로 보내줄것을 열렬 히 탄원하였다.

같은 날 평양공업대학에서도 5000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 대원대를 탄원하였으며 28일에는 평양사범대학, 평양음악학 교, 평양미술학교, 평양농업전 문학교, 평양철도전문학교, 녀 변경잡업전문학교 등 각지의 수 많은 대학, 전문학교, 초고중학교 들에서 청년학생들이 전선으로 나갈것을 탄원하였다. 불과 3-4일사이에 온 나라 청년학 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선으로 탄원하였다.

리수복영웅도 바로 그 시기에 《나의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으 서 자란 해방된 조진청년이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장군님의 명령대로 미제강도놈 들의 침해로부터 행복환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손에 총 을 잡고 전선으로 나갈것을 피 려는 조국애의 심장으로 탄원 한다.》라는 탄원서를 썼다.

로동계급도 전선탄원운동의 열광에 빠져들었다. 6월 26일에 평 양철도공장, 사동연탄공장, 평 양정리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 장, 기업소로동자들이 졸업원 열기회를 열고 전선으로 출동할 것 을 결의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인민들속에는 전쟁이 일 어난 소식을 로양소나 휴가길에 서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멀리 까지 갔고 학업에 열중하던 청년 들 도 뛰어들었다.

《아이, 개놈들! 제땅에서 마 음껏 잘살아보라 했더니... 제땅의 한 농민이 견배된 호미를 버쳐 쳐들고 남쪽을 향 해 터진 이 절구는 전체 조선인 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한 것 이었다.》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평양수산공장 로동자 황운길 은 남조선피뢰군에 불의에 침공

들에 무참하게 학살한 살인기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보고자와 토른자들은 오늘 우 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영도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 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미제가 우리 군대와 인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영도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 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미제가 우리 군대와 인민

들에 무참하게 학살한 살인기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보고자와 토른자들은 오늘 우 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영도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 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보고자와 토른자들은 오늘 우 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영도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 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보고자와 토른자들은 오늘 우 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영도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 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보고자와 토른자들은 오늘 우 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영도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 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에 무를 꿰고 항복서에 도 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 6. 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복수결의모임 진행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복수결의모임이 24일 강서구역 수산리계급교양관 교 양시당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농군맹, 관계부문 일군들, 강서구역의 농업근로자 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리명철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 어 강서구역농군맹위원장 장 동남, 수산농장 관리위원장 리 동현, 만경대구역 원로남새전문 농장 농장원 조명금이 토론

하여 언급하였다. 전락적인 일상적투쟁시기 미 제가 신장평에서 군인구의 4분 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 을 학살하였으며 강서구역에서 도 1만 1 600여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규탄하 였다.

에 국자, 열성농민,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하여 인간으 리 평의 모든것을 참혹하게 파 괴하고 흐르는 못따에서 천인 공노할 살륙만행을 감행한대

하여 언급하였다. 전락적인 일상적투쟁시기 미 제가 신장평에서 군인구의 4분 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 을 학살하였으며 강서구역에서 도 1만 1 600여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규탄하 였다.

에 국자, 열성농민,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하여 인간으 리 평의 모든것을 참혹하게 파 괴하고 흐르는 못따에서 천인 공노할 살륙만행을 감행한대

하여 언급하였다. 전락적인 일상적투쟁시기 미 제가 신장평에서 군인구의 4분 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 을 학살하였으며 강서구역에서 도 1만 1 600여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규탄하 였다.

에 국자, 열성농민,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하여 인간으 리 평의 모든것을 참혹하게 파 괴하고 흐르는 못따에서 천인 공노할 살륙만행을 감행한대

하여 언급하였다. 전락적인 일상적투쟁시기 미 제가 신장평에서 군인구의 4분 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 을 학살하였으며 강서구역에서 도 1만 1 600여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규탄하 였다.

에 국자, 열성농민,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하여 인간으 리 평의 모든것을 참혹하게 파 괴하고 흐르는 못따에서 천인 공노할 살륙만행을 감행한대

하여 언급하였다. 전락적인 일상적투쟁시기 미 제가 신장평에서 군인구의 4분 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 을 학살하였으며 강서구역에서 도 1만 1 600여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규탄하 였다.

에 국자, 열성농민,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하여 인간으 리 평의 모든것을 참혹하게 파 괴하고 흐르는 못따에서 천인 공노할 살륙만행을 감행한대

하여 언급하였다. 전락적인 일상적투쟁시기 미 제가 신장평에서 군인구의 4분 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 을 학살하였으며 강서구역에서 도 1만 1 600여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규탄하 였다.

에 국자, 열성농민,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하여 인간으 리 평의 모든것을 참혹하게 파 괴하고 흐르는 못따에서 천인 공노할 살륙만행을 감행한대

하여 언급하였다. 전락적인 일상적투쟁시기 미 제가 신장평에서 군인구의 4분 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 을 학살하였으며 강서구역에서 도 1만 1 600여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규탄하 였다.

에 국자, 열성농민,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하여 인간으 리 평의 모든것을 참혹하게 파 괴하고 흐르는 못따에서 천인 공노할 살륙만행을 감행한대



## 로씨야에 가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출발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 되는 제3차 국제의회연단회의 에 참가하기 위해 안동총부의장

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24일 평양을 출발하 였다.

비행장에서 판매부문 일군과 주조 로씨야리방 특명전권대사 가 전송하였다.

## 라오스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라오스민주주의공화국사 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주조 라오스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 24 일 대동강구역교단회관에서 있 었다.

반딧 라오스특명전권대사 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 었다.

학교 교원, 학생들 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 에집트특별전권대사 7월23일혁명 62돐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에집트에서의 7월23일혁명 62돐에 즈음하여 이만 무스타 파 아브두 아흐마드 주조 에집 트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 가 24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 하였다.

호헌 대외문화권위위원회 부 위장, 판매부문 일군들이 초대 되었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 독자의 질지 한 가정, 한식솔입니다

제가 특유형에군인인 남편 과 함께 락랑구역에 이사집을 풀어놓은지도 언젠 3년 가 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날 많은 사람들이 우 리 가정을 자주 찾아와 친형 옥의 정으로 따뜻이 들봐주고 있습니다.

그들중에는 우리가 사는 집 이 좁아보인다고 하며 자기들 이 살던 살림집을 서슴없이 내 어준 평양안과명령 의사 리문 동무와 그의 아내 정명동무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정말 험치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들부부에게 칭찬을 이기지 않고있습니다.

락랑구역 승리교공중학교 3학년 3반에서 공부하는 립진 옥학생 중시 우리 가정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습니다.

진옥학생은 영예군인인 저의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24일 비행기 두 대를 띄어 보내 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7월 기상조건의 전망은 비뚤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조질비료와 이삭비료를 제때 에 질적으로 주며 논물관리를 철 보강할 것을 두어야 한다.

조질비료를 이삭비료 4 0- 4 5일전에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지역별기상조건 에 기초하여 논벼의 이삭베는 시기를 예측한데 의하면 5월 25일 이전에 모를 낸 포전들에서 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모를 낸 경우 에 비해 서 해안북부지방에서는 4-5일, 서해안중부

지방에서는 2-3일, 서해안남 부지방에서는 지난해정도이기 나 2일정도 빨라질것으로 보고 있다.

《논벼생산을 획기적으로 높 이기 위하여서 는 당의 농업정 책과 주조농업 의 요구대로 논 사를 과확기공 하는 데

적요하다.》

우리 나라는 6월 하순-7월 상순에 주로 북부 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과 오호즈 크해고기압의 영 향을 받을것으로 예견된다.

평균기온은 7 월 상순에 전반기 지방에서 1 8. 1-23. 2℃로 서 평년보다 0. 3-0. 5℃, 지 난해보다 0. 6- 4. 9℃ 낮을것 으 로 보고있다.

강수량은 7월 상순에 전반기지 방에서 35-82 mm로 서 평년보다 4-1 8mm, 지 난 해에 비하여 8- 2 8 8mm 적을것 으 로 예견된다.

조질비료주는 량을 바로 정하 여야 한다.

심층시비하는 경우 비료를 많 이 받는 품종들에 비하여 2 00 -2 50kg, 비료를 적게 받는 품 종들에 비하여 1 50-2 00kg 주 는것이 좋다.

비료를 땅속 5cm이상 깊이 주어야 효과가 좋 분히 나타날수 있다.

표층시비하 는 경우 비료를 많이 받는 품 종들에 비하여 1 00-1 50kg, 비 료를 적게 받는 품종들에 비하여 80-1 00kg을 이삭비료 4 0- 4 5일전에 주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중간꽃 및 울종들을 심는 포 전들에 이삭비료를 제때에 주어 야 한다.

중간꽃, 울종들은 이삭베는 시기가 빨라질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악하므로 이삭비료를 이삭베 기 30-35일전에 주어야 한다.

중간꽃, 울종들은 심는 포전들 에는 논벼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량의 50-80kg정도의 질소 비료를 이삭비료로 주어야 한다.

조질비료를 심층시비한 경 우 이삭비료를 주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색이 매우 연한 경우 정보당 50kg이하로 적게 주어야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일찍 하여 목표이 삭수의 80-90%에 해당하는 이삭수를 확보한 포전들에서 논물을 빼고 중간꽃밭리기를 진행하며 모내기를 늦게 하지

나 논벼의 생육이 약한 포전들 에는 양분공급방법을 적용하 여야 한다.

뿌리썩는 현상이 심 하게 나타나는 포전들에서는 논 벼생육이 왕성하지 못한 경우 에도 중간꽃밭리기를 진행하며 리오공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팜물질비료를 시비하여 뿌리활 성을 높여야 한다.

장마철복후 에 의한 침수피해를 방지 않도 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논벼밭갈이를 철저히 진행하며 살초제를 기준대로 처리하여 길 을 깔끔히 잡아야 한다.

앞그루작물수확을 제때에 하 고 뒤그루모내기를 6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적과제배하는 포전들에서는 품 종특성을 고려하여 조질비료를 정보당 1 00-1 50kg정도 주 며 깎아대체를 세워야 한다.

동해안지방에서 맹해현상을 막을수 있도록 조질비료를 기준 대로 주고 이삭비료를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년생작물 질비료를 비롯한 대응비료를 주 어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을 보장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논작물생육예보지침부



이미 쏘아놓은 제방들에 대한 보수관리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 명간군에서 —

본사기자 신 흥혁 적음

# 이 땅에 또다시 6. 25가 온다면 침략자, 도발자들은 한놈도 살아남지 못할것이다

## 천만아들딸들을 전선으로 부르는 조국의 목소리

병사들이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간다. 바래주는 어머니, 멀어지는 고향의 모습, 조국의 산과 들을 누비며 이 나라의 아들딸들을 성스러운 복무지로 실어가는 열차...

예제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에 펼쳐지는 광경을 그리고있지만 모란봉악단에서 창작형상한 노래 《전선행렬차》가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문화예술은 천만군민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인 문화예술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의 음악세계에 나타난 이 열차의 종적역은 노래의 제폭처럼 짙은 것이다. 그 어떤 형상적미도 보지 못할 정도로 가늘어진 것이다. 불과 불이 오가고 삶과 죽음이 결정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선이 자기 조국땅에 있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침략자들의 의하여 강요된 64년 6월의 마지막달요일과 더불어 첫출발을 알린 우리의 전선행렬차 세기를 이어 오늘날도 조국땅을 달린다는 것을 사람들은 커다란 충성속에 다시 한번 자각하였을 것이다. 노래의 서정적주인공들은 결코 오늘날의 새 세대들만이 아닌것이다.

세상에 너무도 잘 알려져있는 공화국 영웅 리수복이나 조국선을 비롯한 유명 무명의 전사들은 모두 이 전선행렬차를 타고 떠났다. 작별의 정 뜨거운 역에서 웃고말달리며 바래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고향의 얼굴로 간직하였고 달리는

노래 《전선행렬차》를 들으며

차창으로 보이는 소중한 모든것들을 묵숨버려 지켜야 할 조국의 한 부분으로 가슴에 안고갔다. 이 열차를 타고간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력사는 생생히 기록하고있다. 조국은 언제나 이 열차를 타고 전선으로 달려간 아들딸들의 위훈을 가장 아름답게 추억하며 세세년년 전하고있는것이다.

그 유용한 대오의 흐름속에서 오늘날은 조국경사수호정신으로 심장을 끓이며 수평결사수호의 항로만을 나는 하늘의 결사대들이 자라났고 무도의 영웅방아대원들도 배출되었다. 훈련의 하루하루를 전투의 날과 날로 여기고 피와 땀을 바치는 강한 아들딸들이 천리방천의 무성할 숲을 이루었다. 노래는 이렇듯 오랜 력사적과정과 오늘의 벽천 현실속에 형성적바탕을 두고있는것이다.

가시적면의 내용은 깊은 사색과 깊은 정서를 내포하고있지만 시종일관 폐속으로 달려가는 열차와 같이 경쾌한 선율과 박력있는 리듬을 타고 흐르는것이 이 노래가 가지고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전선으로 간다는것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언제나 최전선 제1선참호에 파지를 정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가장 가까운 존재, 생사를 함께 하는 참다운 동지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화국공민으로서 지닐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있고 최대의 애국이 있는 전선이기에 그곳으로 떠나는 감정을 밝고 광명한 양상으로 형성하였는 전선행렬차의 본질에 대한 진실하고도 정확한 반영으로 되는것이다.

이 노래를 전선으로 떠나는 신임병사들

만이 즐거부름수 있는것으로 보기에 그것이 남긴 격정과 여운이 너무도 크다. 초소로 떠나는 병사들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란 사실상 없다고 할수 있다. 다름 아닌 그들의 부모이고 혈육들이며 친한 동무들이던 인연이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에 대해 무심할수는 없는것이다. 원추들과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숨쉬는 자도 가지도 없는 첩멸피하여 속물이다.

사람들이 노래 《전선행렬차》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며 자기의 생활과 결부시켜 키게 되는것은 우리 조국에 있어서 창조와 건설의 모든것 역시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으로 되어왔기 때문이다. 노래의 서정적주인공들은 군복을 입고 떠나는 젊은이들이지만 그 열차에는 나라 인민이 함께 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사상분야에서나 경제와 문화건설에서나 싸우는 조선의 전선으로 떠나는 항상 선술선수가 일상용어처럼 비껴왔고, 정치사업에 해도 화선식, 농사를 해도 알곡고지정령을 위한 영농전투였고 사회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행적들은 정치사상선진, 경공업전선, 농업전선과 같은 전구들로 명명되어왔다. 공격전, 견적전, 섬멸전, 속도전, 최첨단과편과 같은 적극적인 전투형식과 방법으로 일관된 우리의 투쟁은 강성국가건설전이며 그 함의 전사들은 다름없이 우리 인민자이다.

우리 당이 기억하고 내세우며 인민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자들을 제외없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안고 한층의 쌀을 생산해도 총탄을 만드는 심정으로, 한삼의 흙을 떠올려도 원추에게 불벼락을 안기듯이 일하며 싸워온 혁명적근정신인 훌륭한 체현자들이었다.

—전선행렬차에 언제나 몸과 마음을 실고 살라. 그래서 고향과 조국을 창닫다 사랑할수 있고 그를 위해 한복속 숨숨없이 바쳐싸우는 열렬한 애국자가 될수 있다!

바로 이것이 격동하는 오늘의 시대, 위대한 어머니조국이 이 나라의 천만아들딸들에게 노래 《전선행렬차》와 더불어 제기하는 엄숙한 요구이고 준결정 서정의 웨침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그 누구이든 자기의 생활과 운명과 미래를 거누고있는 적의 총구를 보아야 하며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처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원수를 증오하며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 때만이 전진하고 기나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공연무대에서 처음 울려 퍼진 이 노래는 오늘 문예예술분야의 모든 창작자, 예술인들에게도 귀중한 창조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당의 정책과 시대의 본질이 담겨지고 인민의 정서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문학예술의 강령이었던 이렇듯 거창하고 가슴뛰는 전구적 명위업의 최후수리를 향하여 힘차게 뛰어나갈것이다.

### 전대미문의 살륙과 파괴전쟁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그 잔인성과 야만성에 있어서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살륙과파괴전쟁이었다.

《죽이라,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랄지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당시 미8군사령관이었던 위키의 이 살인명령은 조선인족멸살을 노린 미제의 잔악한 총제의 집중적인 발로였다. 살륙과 파괴에 환장이 된 미제침략자들은 남녘로소를 가리지 않고 쏘아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생매장해죽이였으며 무뎠달아죽이였다. 미제침략군은 전쟁시기 남조선에서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충청북도 영동군 로군리대대와 수원, 대진과 충주, 공주와 평택, 부여와 청주, 전주와 군산, 안양과 통영을 비롯한 남조선 그 어디에서나 무차별적인 대학살행이 감행되었다.

미제살인귀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공화국북반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도 대대적학살행을 감행하였다. 일시적잠정시기 신원때서 군인구의 4분

의 1에 달하는 무고한 인민들이 학살된것을 비롯하여 전쟁기간 황해도에서 40만 1940여명, 평안남도에서 16만 2180여명, 강원도에서 12만 9390여명, 평안북도에서 11만 6220여명, 함경남도에서 11만 5300여명, 함경북도에서 8만 2200여명, 자강도에서 6만 4240여명의 인민들이 미제살인귀들에 의하여 피륙되며 쓰러졌다. 3년간의 전쟁기간 공화국북반부에서 123만 154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미제악마들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었다.

미제는 평양시에서만도 500kg 짜리 폭탄과 1t짜리 폭탄을 비롯하여 40여만개의 폭탄을 퍼부었는데 그것은 평양시민 한명당 1개이상의 폭탄을 퍼부는 것으로 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제가 조선인들을 멸살시키기 위해 얼마나 미처날뛰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저지른 용납 못할 범죄의 하나는 국제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는 세군권을 전면적으로 벌리고 대량살육수단인 화학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하였는 것이다. 미제의 이 악명 높은 세군권, 화학전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떠벌이면서 전쟁기간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에 대규모의 폭격과 포격을

가하고 국제협약에 의해 금지된 무기까지 서슴없이 사용하여 온 강도모를 그야말로 초토화하였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대대적으로 벌린 미제의 폭격과 포격만행으로 3년동안에 공장, 기업소건물 5만 941동, 각급 학교건물 2만 8632동, 병원, 진료소를 비롯한 보건시설건물 4534동, 과학연구기관건물 579동, 출판 및 문화기관건물 8163동, 살림집 207만 7226동이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와 함께 4879km의 철길과 4009km의 도로, 1109km의 다리, 1715개소의 저수지와 그 시설물들이 폭파, 손상되어 막대한 인적, 물적 및 환경피해가 초래되었으며 56만 3755정도의 부침방이 황폐화되고 15만 5000정도의 논밭면적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억만금을 추고도 보상할수 없는 국보적인 민족문화유산들이 무참히 파괴당하였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하였으면 세계각국의 조사단들과 기자들이 조선에서의 미제의 만행을 《세계력사상 그 어디에서도 없었던 최악의 만행》으로 확인하였는 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으로 조국강토에 남은것은 말그대로 재더미뿐이었다.

미제야만들은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코야 말것이다.

라영국

## 미국과 괴뢰패당은 조선전쟁을 일으킨 침략자,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6. 25를 계기로 괴뢰패당이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괴뢰패당은 그 무슨 《호국행사》 개최, 《참정용사초청》이니, 《전투기념식》이니 하며 여기에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국과 추종국가의 고용병들과 남조선의 청소년들까지 끌어다놓고 친미사태와 동족대결광기를 악랄하게 고취하는가 하면 미국과 함께 《북금변사태》에 대비한 연합훈련이니, 《해병대합동전투훈련》이니 하는 각종 전쟁발장난으로 북침방란을 일으키고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6. 25전쟁발발책임은 우리에게 넘겨줘야 전쟁도발범죄를 가리우며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발점을 터치기 위한것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이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 전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일대 미제와 그 추구인 리수만당당이 계획적

으로 준비하고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8. 15후 《해방자》의 말을 쓰고 남조선에 불법강점한 미제는 괴뢰전선과 괴뢰군을 조작하고 38°선일대에서의 끊임없는 무장도발로 정세를 긴장시키며 북침전쟁도발의 구실을 찾는데 방관하였다.

미제와 괴뢰패당은 여기에서 웅대한 교묘를 찾아대신 전후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반공화국전쟁과 방공행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려왔다.

남조선을 중공화국의 핵전초기지로 전전시켰던 미국이고 《팀 스피리트》, 《키리졸프》, 《독수리》 등 각종 핵전쟁연습을 방관적으로 벌리며 우리 공화국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정경으로 몰아간 파렴치한 우용이고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고 도전이다.

최근 미국과 괴뢰패당은 《맞춤형억제전략》이니, 《공동국제도발대계획》이

니 하는 위협천만한 북침전쟁 각본에 따라 핵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핵전쟁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하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기 위한 침략적인 미사일방위 체계구축을 적극 다그치고 있다.

력사와 현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6. 25전쟁의 도발자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유린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괴뢰패당이 6. 25전쟁에 대해 그 누구의 《남침》이니 뭐니 하고 생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이라는 황당한 구실밑에 반공화국대결소동과 전쟁행동에 정적 위협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정경으로 몰아간 파렴치한 우용이고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고 도전이다.

더우기 조선전쟁에서의 참패가 너무도 망신스러워 《잇 전선 전쟁》이라고 하면서

밖에 내들리지 못하던자들이 이 무슨 《소리》을 뉘우하며 《기념》하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는것은 무덤의 망두석도 웃지 않을수 없는 해피한 희비극으로서 세상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미제와 괴뢰패당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침략자, 도발자의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반공화국대결행동으로 얻을것이란 수치스러운 참패밖에 없다.

우리 천만군민은 미제와 괴뢰패당이 력사의 시대를 교묘를 망각하고 또 다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다며 쌓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켜 선군의 총대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 이룩하고야말 것이다.

미제와 괴뢰패당은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반공화국대결모략방란을 당장 접어치워야 한다.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 원수를 무찌르며 남으로!



조국의 바다를 지켜싸우는 해군어뢰정대 대전시대로 돌입하는 인민군인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어나 싸우는 인민은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주제 99(2010)년 8월에 세상을 떠난 김경민전장군이 생의 말년에 썼다는 수기일편을 받게 되었다. 수기일편에 겪은 전쟁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살리며 한자 또 한자 적어놓은 전투담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중에서 전쟁의 첫 해에 겪은 로병의 체험은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의 싱긋이름 넘세... 전쟁만 아니었다면 밖에서 시동은 뛰여놀고있는 동해바다의 아름다움은 가슴에서 나의 병사생활이 시작되었다.

전선에서 받은 첫 편지

콩콩... 동중촌 폭음이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오후훈련을 마치고 갑자기 대대우에 도착하려는 입부터는 우리 소대는 부소대장의 인솔밑에 저녁녘에 대대부하 있는 어느 한 산골짜기에 도착하였다.

지휘부앞에서 잠시 휴식하는 사이에 부소대장은 대대부하에 걸려있는 우편함에서 한통의 편지를 꺼내내었다. 《경민이, 편지!》

나는 방망이질하는 심장의 박동을 느꼈다. 일대하여 한달동안 3번이나 고향에 편지를 보았으나 이번 소식은 없었다. 그 자리에서 경중 뛰고있는 기쁨을 가가소로 누르며 나는 고향에는 온 첫 편지를 받았다. 구석진 곳을 찾아 편지를 개봉하는데 소대원합창군이 떨어졌다.

우리 소대에는 특사로 상륙하여 우리 대대의 뒤에 붙은 적들을 견제하여 대대의 기동을 보장할대 대한 임무가 하달되었다. 대대를 점검하고 봉강방향으로 행동을 개시하였다. 보지도 못하고 주머니에 넣은 편지를 손끝으로 만지면 나는 과연 고향에서 무슨 소식이 있을가 하고 졸문 생각을 곱했다. 어둠이 깊어지는 한 야산기슭에서 휴식명령이 떨어졌다. 한시라도 빨리 편지를 보고싶었으나 나에게 편지가 없었다. 멀지 않은 곳에 등산객들이 내려가려는 농촌집들이 보였다. 생각하던 끝에 분대장에게 물을 마시고 오겠다고 하고는 나는듯이 농가로 달려가 집주

니 하는 위협천만한 북침전쟁 각본에 따라 핵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핵전쟁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하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기 위한 침략적인 미사일방위 체계구축을 적극 다그치고 있다.

력사와 현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6. 25전쟁의 도발자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유린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괴뢰패당이 6. 25전쟁에 대해 그 누구의 《남침》이니 뭐니 하고 생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이라는 황당한 구실밑에 반공화국대결소동과 전쟁행동에 정적 위협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정경으로 몰아간 파렴치한 우용이고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고 도전이다.

더우기 조선전쟁에서의 참패가 너무도 망신스러워 《잇 전선 전쟁》이라고 하면서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 보총의 길이는 166cm, 나의 키는 155cm

난생처음 나의 두손으로 총을 받아쥐는 순간 짜릿한 흥분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갓 입대한 16살의 신입병사인 나에게 있어서 길쭉한 총창까지 꿰어있는 보총은 참으로 무거웠다. 전투용이 보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보총과 나의 키를 대비해보았다. 나의 키보다 10cm는 더 길어보였다.

보총의 길이는 166cm, 나의 키는 155cm, 과연 이 총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적을 소멸할수 있을가. 이것은 전쟁초기 나이던 병사인 내가 안고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주제 39(1950)년 8월 군대에 입대한 내가 처음으로 선 초소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의 해안이었다. 기습을 치며 간간이 들려오는 파도소리, 푸른 창공을 나는 갈매기들, 해안의 야산기슭에 설레민 잠판목들

### 전쟁의 첫 해에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 실화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 1950년 10월 30일 길주전투에서 전사

우리 소대는 길주시내를 옆에 끼고서 전진을 차지하였다. 거기서 싸우던 2대대 동무들과의 인제사업이 끝났을 때 인민들이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올라왔다. 대대사령관은 동무들이 정선없이 고지로 오르고있었다. 《쏘라, 빨리 쏘라! 주준사격으로!》

나는 훈련을 받는데로 침착하게 적들을 한눈도 못볼 겨우가며 방아쇠를 당겼다. 부지런히 쏘느니라고 하지만 적들의 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자연히 긴장감과 식은땀이 나면서 명중사격도 잘되지 않았다.

이때 《익측이 돌파당했다!》하고 웨치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

### 해에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 에

《적들이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짧은 분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안전장치를 쏘고 총을 쏘아냈다. 저지 소대장이 급히 우리들을 저지시켰다. 《놈들을 접근시키지!》

그제야 우리들은 진지에 몸을 붙이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울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피난민이요. 쏘지 마시오!》

### 아랑전기습에서

나는 이따금 청진방향으로 출장을 갈때가 있다. 내가 탄 열차가 어랑천부근을 지날 때면 나는 저도모르게 먼저 간 전투원들을 추억하며 가슴들먹이곤 한다. 지금의 행복을 실은 열차들이 폐사를 예고하지않고 주재39(1950)년 11월 이곳의 철길에서는 침묵 한대, 레우 1m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어랑천을 도하하는 적들의 공격을 물리칠 준비를 하던 우리 대대에 어랑천을 건너 우리 적들을 불의에 공격할때 대한 임무가 하달되었다. 우리 중대에 봉강철교를 넘어 아군의 진격로를 열대 대한 임무가 하달되었다.

새벽 4시 아군의 포준비사격이 있을 후 인적이 끊어지고 포준전으로 달려오는것을 보며 적들의 조명탄이 오르고 물사격이 시작되었다.

완전히 로출된 상태에서 철교를 기억하는것으로 하여 전투원들이 한사람두사람 떨어져 나가며 강물에 떨어졌다. 한뼘 되어나마나한 레우가 유일한 방패였다.

### 3년간의 피어난 체첩에 비해

3년간의 피어난 체첩에 비해 먼 김경민전장군이 남긴 이야기는 너무나 적었다. 그러나 전쟁의 수기일편에 기록된 전쟁 첫 해의 추억만으로도 우리는 보총보다 키가 작던 꼬마병사가 전하의 불길속에서 어떻게 불사신같은 용사로 성장했는지, 전승의 7. 27이 어떤 값비싼 대가로 이뤄졌는지 실감없이 짐작할수 있었다. 1950년대 영웅선사들이 지녔던 조국경사수호정신에 대하여 쉽게 위유지 말아야 한다는 로병들의 당부바라기엔 들려오는듯싶었다. 전회의 영웅들의 투쟁정신과 넋을 말로써가 아니라 심정으로, 목숨으로 지키고 빛내야 할 때 우리들, 새 세대들은 로병들이 세 지 못한 원고를 충실정신으로 이어나가 력사에 써나가는가 될것이다.

### 본사기자 한충혁

